

전경련, Katrina 구호성금 1000만달러 전달

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9월15일(현지시간) 미국 뉴욕 월도프아스토리아호텔에서 열린 <2005년 코리아 소사이어티> 연례만찬에서 전경련 회원사가 모금한 허리케인 카트리나(Katrina) 구호성금 1000만달러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통해 <부시-클린턴 카트리나 펀드>에 전달했다.



강신호 회장은 카트리나 구호성금 전달식에서 “한국 경제계를 대표해 카트리나로 막대한 피해를 본 뉴올리언스 등 미국의 희생자와 수재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, 구호성금이 빠른 피해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”는 취지를 전했다.

부시 전 대통령은 카트리나 피해복구를 위해 설립된 부시-클린턴 카트리나 펀드에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.

만찬에는 노무현 대통령, 부시 전 대통령 등 한-미 정·관계, 재계, 학계, 언론계 인사 약 1000명이 참석했으며 부시 전 대통령은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한-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인사에게 매년 시상하는 Van Fleet 상을 수상했다.

<화학저널 2005/09/16>